

# 4월의 사양관리

- 축산기술연구소 -

일반 사양관리

**문** 이라고 하지만 낙농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도 춥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도저히 싹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우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자체 조사료생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값 인상과 조사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우유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양표준을 작성하고 연간 필요한 조사료 확보계획을 세우고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유량 증대에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영양관리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값싼 부산물을 이용하여 조사료 대체효과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양관리

**문** 농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젓소 사양관리에 관심이 소홀해지는 농가가 많다. 결국 사료량을 줄이고 특히 조사료 급여량을 줄이게 된다. 낱유량도 쿼터에 묶이고, 조사료 수입량도 쿼터에 묶이고 모든 것이 묶기다보니 젓소에 스트레스가 돌아가게 되는 형국이다.

- 비유초기 산유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을 하여 체중감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자. 비유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곡류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반추위내 산도 하락으로 다른 질병이 유발할 수 있다. 적절한 조사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일기가 점차 따뜻하게 되므로 사료의 변화가 겨울철보다 빠르게 온다.
- 부산물확보에 주력한다.
  - 전지면실, 면실피 펠렛, 대두피, 맥주박, 단백질, 옥피, 밀기울 등
  - 배합비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문** 유 수급균형의 문제로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사료 및 축산자재 가격인상과 수급불안정으로 축산업이 일대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가축질병의 발생과 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축질병발생 및 피해증가 요인으로는 ① 사료의 원가절감차원에서 각

중 가축질병 예방용 사료첨가제의 사용량 감소 ② 사료급여량(조사료)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로 저항력 약화 ③ 약품 값 상승으로 예방 약품사용량 감소 ④ 치료약품 구입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질병예방 방법을 터득하고 착실히 이행하여 질병을 미리 막지 않으면 안된다. 방역 중 자기방역 요소로는 ① 농장내로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방역 ② 농장내에서 병원균이 증식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생관리 ③ 가축에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영양관리 및 예방접종 ④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고 할 수 있다.

● 유질 향상을 위한 유두 소독

유두소독은 유방염 관리 중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며 유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 착유 전 유두침지를 실시하고 유두컵을 장착하기 전에 소독약을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 착유 후 유두침지 소독은 착유기가 제거되면 곧바로 실시한다.
- 침지제는 희석량을 설명대로 일정농도를 유지하고, 1일 사용량을 계산하여 사용하도록 준비한다.
- 유방털을 제거하여 유질 오염을 막는다.

● 정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실시한다.

● 1년 중 1차 기생충 구제를 실시한다. 농후사료와 잘 혼합하여 급여한다.

● 효과적인 건유기 유방염관리를 실시한다.

● 유방의 건강상태 점검 및 유방염에 대한 철저한 개체기록을 한다.

● 청결하고 안락한 우사 환경유지를 하고 건조하게 하라.

● 금년은 예년과 달리 조사료 생산의지가 높다.

● 춘파용 재배관리 요령을 숙지한다.

● 사료작물과 목초종자 소요량을 파악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옥수수를 파종하고 제초제는 파종 3일 이내 살포한다.

- 옥수수 파종시기 : 중부지방 4월 15-20일, 남부지방 4월 5-10일

- 옥수수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퇴비와 인산질 비료를 뿌려준다. (㉮)

필자연락처 : ☎041)580-3384

초 지 및 사 료 작 목 물